제3강 장안의 그들

1. 장안을 말하다

"100년의 중국을 보려면 상하이(上海)로 가라, 천 년의 중국을 보려면 베이징(北京)으로, 2천 년의 중국을 보려면 시안(西安)으로 가라, 5천 년의 중국을 보려면 줘루(涿鹿)로 가라," (고고학자 쑤빙치蘇秉琦)

(1) 장안, 제국의 수도

시안, 즉 고대의 장안(長安)은 한나라의 수도이면서 또한 당나라의 수도.
한나라 때의 장안은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
진시황의 기억이 남아있는 지역.
장건이 서역을 향해 떠났던 곳이며, 한 무제가 제국의 영토 확장을 꿈꾸던 곳.
사마천이 고향을 떠나와 사관(史官)으로서의 꿈을 펼쳐갔던 곳.
한 무제의 무덤을 비롯해 그 시대의 그들이 잠들어 있는 곳.

당나라 때의 장안은 화려했던 국제 도시.
대명궁과 흥경궁이 있는 장안성의 동쪽엔 관료와 귀인들이 많이 살았음.
방(坊)으로 구성된 계획 도시.
동시(東市) 근처 북리(北里)에는 벼슬아치와 과거시험 보러온 젊은이들이 모여 기녀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곤 했음. 그래서 젊은 사인(士人)들과 기녀들의 사랑과 이별에 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음.
주작대가(朱雀大街) 서쪽에 있는 서시(西市)에는 작은 점포들이 몰려있었음. 곳곳에서 페르시아와 대식국 등 서역에서 온 상인들이 향료와 약품을 팔았으며 소그드상인들은 보석상과 금융업에 종사했음. 성의 서쪽 구역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북적였음. 정월 대보름날의 등불축제[燈會]도 유명했고, 장안성 100만 인구 중 외국인도 2%나 되었음. 그리하여 당시의 첨단 유행은 소위 '서북풍(西北風)'. '서역 여인들[胡姬]'들이 많았고, 당연히 젊은 협객들도 많이 모였음.

신풍의 향기로운 술은 한 말에 만 닢, 新豊美酒斗十千
함양의 유협은 대부분이 젊은이들 咸陽遊俠多少年
서로 만나 뜻 맞으니 벗들 위해 술 마신다 相逢意氣爲君飮
술집 수양버들 가에 말을 묶어두고서 繫馬高樓垂柳邊 (왕유王維,「少年行」)

당 왕조의 땅이 넓다보니 서북쪽엔 수많은 주둔군이 나가있었음. 고구려 유민 출신이었던 고선지 장군 역시 이 시절에 강성했던 토번(티베트)를 저지하며 파미르고원을 넘어갔음. 그러다보니 머나먼 서북으로 떠난 병사들과 장군들을 소재로 한 전쟁의 노래들, 즉 '변새시(邊塞詩)'라는 특별한 분위기의 노래들이 유행. 그것 역시 당시 유행했던 서역의 노래나 복장들과 같은, '서북풍'의 일종. '변새'는 호방함을 흠모했던 그 당시 남자들의 이국적 정서를 대표해주는 공간이었으며 또한 묘한 고독감과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미지의 공간이기도 했던 것.

향기로운 포도주와 야광배 葡萄美酒夜光杯
마시려 하니 말 위의 비파소리도 재촉하는구나 欲飮琵琶馬上催
취해서 사막에 누웠다고 너무 웃지 마시게 醉臥沙場君莫笑
예로부터 전장에 나가 돌아온 자 몇 안되는 걸, 古來征戰幾人回(왕한王翰, 「양주사凉州詞」)

위성의 아침 비가 가볍게 황토먼지 적시니 渭城朝雨浥輕塵
나그네 묵고 있는 숙소의 버들 빛이 더욱 푸르다 客舍靑靑柳色新
그대에게 술 한 잔 더 비우라고 함은 勸君更盡一杯酒
서쪽으로 양관을 나가면 더 이상 친구가 없기 때문이지 西出陽關無故人(왕유, 「위성곡渭城曲」)

(2) 장안, 현종과 양귀비

당 현종과 양귀비, 그리고 시인 이백 사이에 얽힌 이야기는 장안을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도시로 만들었음. 장안 서쪽 60킬로 지점에 있는 마외파(馬嵬坡), 양귀비의 무덤이 있는 곳. 양귀비와 양국충, 간신 이임보, 환관 고력사, 안록산의 난.

아이고, 아찔하고 높고 험준하구나!
촉으로 가는 길 어려워라!
푸른 하늘 오르는 것보다 더 어렵네
잠총과 어부가 촉을 개국한 날이 언제였던가?
그로부터 4만 8천 년 동안 관중 땅의 진나라와 내왕이 없었으니...(이백, 「촉도난(蜀道難)」)

궁성 안팎에서 전란의 연기와 먼지 일어나니
천승만기 황제의 행렬이 촉 땅으로 피난가네
황제의 수레, 흔들흔들 가다가 멈추니
도성을 나서 서쪽으로 백여 리

군인들이 더 이상 가련하지 않으니 어찌할 도리 없어
고운 미녀 마외 언덕에서 죽었다
꽃 비녀 땅에 떨어져도 거두는 이 없고
비취 금작 옥 머리장식들
왕은 차마 볼 수 없어 얼굴을 가릴 뿐 구해줄 수 없었으니
돌아서 바라보며 피눈물 흘릴 뿐.,(백거이白居易,「길고긴 한의 노래[장한가長恨歌」)

--원나라 때에「오동나무에 내리는 비(오동우梧桐雨)」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 되었고, 중국을 대표하는 경극(京劇) 배우인 메이란팡[梅蘭芳]의 술 취한 양귀비 연기가 최고라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경극에서도 양귀비이야기는 중요한 소재.
현종 이융기와 귀비 양옥환의 사랑이야기가 천년 세월이 넘도록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유는?.
"하늘에서 비익조 되고 땅에서 연리지 되기를(在天願作比翼鳥, 在地願爲連理枝)"
(zài tia¯n yuàn zuò bǐyìnia˘o, zài dì yuàn wéi liánlǐzhī)

(3) 장안, 시인 이백과 두보
개방적이고 열린사회답게 당나라는 또한 문학적 분위기로 충만한 시대. 이백과 두보가 낙양에서 만나고 헤어지면서 동시대를 살아갔음. 장안의 봄날, 그들은 장안성의 화려함에 몸을 담았으나 장안에는 아름다운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었음. 정치적 바람이 휘몰아치는 차가운 장안의 겨울, 그들은 그 바람 속에서 장안성을 떠나며 눈물을 흘려야 했음.
이백은 여행가. 감숙성 출신, 한족이 아니고 서북 지역 민족의 피를 가진 시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음. 그는 스무 살에 촉 지방, 즉 지금의 사천성 지역을 여행했으며 그 후 무려 16년 동안 중국 남부 지역의 거의 모든 곳을 다 돌아다녔음. 사마천도 여행가. 그가 쓴 『사기』는 역사책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적 향기가 높았으며 그의 문장은 모든 젊은이들이 모범으로 삼아 베껴 쓰곤 했음. 이백 역시 붓을 잡으면 시가 줄줄 나오는 시인.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君不見 ju¯n bù jiàn
황하의 물 한 번 흘러가면 黃河之水天上來 huánghé zhī shuǐ tia¯nshàng lái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을 奔流到海不復回 be¯n liú dào ha˘i bù fù huí
(이백,「장진주將進酒」)

"하늘이 나를 태어나게 한 것은 다 쓰임이 있기 때문(天生我材必有用)"
"돈이라는 것은 쓰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마련(千金散盡還復來)"

꽃 사이에 술 받아 놓고 아무도 없이 홀로 마신다.
잔을 들어 밝은 달 불러오고, 내 그림자 불러오니 문득 셋이 되었다.
달은 술 마실 줄 모르고 그림자는 그저 나만 따라 움직인다.
잠시나마 달과 그림자를 벗하니 즐김도 때를 타야 하는 법,
내가 노래하면 달은 서서히 움직이고 내가 춤추면 그림자도 따라서 돈다.
깨어있을 때엔 기쁨 함께 하지만 취하면 제각기 흩어지니,
이런 자유로운 교유 영원히 맺어 은하수 길에서 만날 수 있기를." (이백, 「달빛 아래서 홀로 술마시며(월하독작月下獨酌)」)

가지의 붉은 꽃 이슬 향기 맺혔는데 一枝紅艶露凝香
무산의 비바람이 애간장을 끊는구나 雲雨巫山枉斷腸
묻노니 한나라 궁궐의 누구와 비교하랴 借問漢宮誰得似
어여쁜 비연이 새 단장하고 뽐내는 듯 可憐飛燕倚新妝(이백, 「청평조淸平調」)

오색구름 일어나는 아침의 백제성에 이별을 고하고 朝辭白帝彩雲間
천리 길 강릉으로 하루 만에 돌아간다 千里江陵一日還
양쪽 강기슭에 잔나비 울음소리 끊이지 않는데 兩岸猿聲啼不住
가벼운 배는 벌써 만 겹의 산을 지났네. 輕舟已過萬重山
(이백, 「아침에 백제성을 떠나며(早發白帝城)」

2001년, 라틴아메리카를 방문 중이던 장쩌민 주석과 쿠바의 카스트로가 만남.
"아침에 오색구름 찬란한 중국을 떠나 朝辭華夏彩雲間
열흘 만에 라틴아메리카에서 돌아간다. 萬里南美十日還
바다 건너 바람 소리 미친 듯 비를 몰고 오지만, 隔岸風聲狂帶雨
푸른 소나무 당당하기가 산과 같구나靑山傲骨定如山"

두보가 이백을 만났을 때
-「봄날 이백을 생각하며(春日憶李白)」, 「꿈에서 이백을 보고(夢李白)」
"정다운 이와의 사별, 사람을 흐느끼게 하지만 그와의 생이별 또한 그지없이 비통하다. 남방의 음습하고 무더운 곳으로 귀양 간 이후 쫓겨난 나그네 소식 없는데, 친구가 내 꿈속으로 들어오네, 내가 그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아는 듯.

그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날개라도 생긴 것인가? 길이 멀어서 알 길 없는데 혹시 당신이 죽어 혼백이 내게 온 것이 아닌지. 진정 당신의 혼이 찾아왔다면 단풍나무도 그로 인해 푸르게 될 것이며, 만약에 혼이 떠나간다면 관산도 어두워질 것. 깨어보니 떨어진 달이 집의 대들보를 훤히 비추는데, 아마 그대 얼굴을 비추는 듯하다."

붉은 칠을 한 대문 안에는 술과 고기가 넘쳐 썩어나는데
길에는 얼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군다.
지척에서 부귀와 가난이 이렇게 다르니
슬프다.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렵구나.
(두보, 「서울에서 봉선현으로 가면서 느낀 감회 오백 자(自京赴奉仙縣詠懷五百字)」)

관리들의 고함 소리가 어찌 저리 거센가,
할머니의 울음소리는 어찌 저리 가련한가,
할머니가 나서서 하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니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전쟁터에 갔어요,
두 놈이 며칠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살아있는 놈은 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고
죽은 놈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요.
이제 집안에 남자라고는 없습니다. 젖먹이 손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방에 있지만 입을 옷이 없어서 못 나옵니다.' (두보, 「석호리」)
-->두보의 눈물, 영화 「호우시절」과 두보초당

2. 사마천, 길 위의 여행자

(1) 사마천, 길 위로 나서다

산시(山西)성 한청[韓城]은 산시성 동남부 황토고원 구석에 숨어있는 작은 도시-용문龍門. 황하가 내려다보이는 절벽 꼭대기엔 사마천의 무덤과 사당이 있음.
'사마천의 덕이 산처럼 높아 사람들이 우러러본다(高山仰止)',
'하산지양(河山之陽)'
'역사가의 붓이 세상을 밝힌다(史筆昭世)'

‘사마고도司馬古道’
사마천의 사당과 그 뒤의 침궁寢宮, 수염 달린 그의 진흙 소상
무덤과 가지가 다섯 개로 갈라진 측백나무(‘다섯 아들이 모두 과거급제하다(五子登科)’)

태사령太史令이라는 직책을 담당하고 있던 아버지 사마담.
아버지를 따라 스무 살 나이에 장안으로 간 그는 먼 여행길에 오름. 장강과 회수 지역으로 갔다가 초나라 시인 굴원의 눈물과 한이 서린 원강과 상강에 갔으며 북으로 방향을 틀어 문수와 사수를 건너 공자의 고향인 산동에 갔음. 다시 개봉을 거쳐 장안으로 돌아옴.

길- 가만히 한 군데에 앉아 책 속의 지식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그 지식은 화석이 되어버림. 길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스승이 있음. 사마천의 역사서가 그렇게 감성적이어서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것도, 이백의 시가 그렇게 거침없는 매력으로 사람을 휘어잡는 것도, 모두가 그들이 ‘길 위의 여행자’였기 때문.

‘풍추사마風追司馬’
-2005년 5월 28일, ‘사성史聖’ 사마천 탄생 2150주년 기념행사

(2)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마천이 긴 여행에서 돌아와 하게 된 벼슬은 황제의 비서관 역할인 낭중郎中. 무제의 명으로 쓰촨四川과 윈난雲南지역에 가있다가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돌아옴. BC111년, 무제가 태산으로 봉선의 제사를 올리러 떠났는데 무제는 태사령 사마담을 데리고 가지 않음. 사마담 세상을 떠남.

"우리 선조는 주나라 왕실의 태사太史였다, 그런데 후세에 와서 우리 가문이 쇠퇴하였다, 이 전통이 나에게서 끝나면 안되겠지? 네가 다시 태사가 되면 우리 선조들의 임무를 계승해야 된다, 천자께서 천 년의 전통을 이어받아 태산에서 봉선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 그런데 나는 참가할 수 없었다,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이냐! 내가 죽으면 너는 태사가 될 것이다, 네가 태사가 되면 내가 쓰려고 했던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저 효라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데에서 시작해서 군주를 섬기고 입신양명하는 것이다."

"일찍이 아버지께서 '주공이 돌아가신지 500년 만에 공자가 나타났고 공자가 돌아가신 후부터 지금까지 500년이 지났다, 과거의 밝은 세상을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 『춘추』를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었던가!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었던가! 내가 어찌 그 뜻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

B.C.99년 '이릉李陵 사건'- 이광리李廣利 장군의 3만 기병. 이릉의 5천 보병. 3만 명의 흉노 군사와 맞서게 됨. 이광리는 무제가 총애하는 이부인의 오빠. 사마천, 흉노에 투항한 이릉의 위한 변호. 무제, 사마천을 사형시키려 함. 면하는 방법은 오십만 전이라는 막대한 돈을 내거나 궁형을 당하는 것, 사마천에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궁형을 선택.

"극형을 받으면서도 태연하게 부끄러운 빛조차 띠지 않았던 것은 이 저술을 미완성으로 끝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책을 완성해서 명산에 소장하고 각지의 지식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궁형을 받은 나의 수치스러움도 충분히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을 다 끝낼 수만 있다면 그 후에는 내 몸이 산산조각이 난다고 해도 나는 아무런 후회가 없다....죽는 것은 오히려 쉽다.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살아남는 것이다. 그 유일한 이유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보임소경서報任少卿書」-->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는 살아남아야만 했음.

(3) 절망에서 나온 분노의 노래

"나 태사공은 이릉 사건으로 화를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내가 탄식하며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죄인가! 이것이 나의 죄인가! 몸이 망가져서 세상에 쓰이지 못하게 되었구나' 하였다. 그런데 궁형을 받고 나서 물러나 깊이 생각해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거에 나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고도 훌륭한 책을 남긴 사람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서백(주나라 문왕)은 유리에 갇힌 몸이 되어서 『주역』을 썼고, 공자도 진나라와 제나라 사이에서 쫓겨 다니는 고난을 당하면서 『춘추』를 썼으며, 굴원은 추방되어서 「이소」라는 불후의 작품을 남겼고, 좌구명은 실명당하고서도 『국어』를 지었다. 손자(손빈)는 무릎 아래가 잘리는 형벌에 좌절하지 않고 위대한 병법인 『손빈병법』을 남겼다. 그리고 여불위는 촉으로 추방되어서 『여람』을 세상에 전하였다. 한비자는 진나라에 갇힌 몸이 되어서도 「세난」과 「고분」을 남겼다. 시경 300편도 성인이 발분하여 남긴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마음에 맺힌 바가 있었고 자신의 이상이 당시에는 통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나간 일을 기술해서 다가올 미래를 생각한 것이다." (사마천, 「태사공자서」)

48세 되던 해에 궁형을 받고 2년 후에 출옥한 사마천은 다시 『사기』를 저술하는 데에 정열을 쏟아 부었음. 마침내 16년 세월에 걸쳐 『사기』 완성. -'발분지서發憤之書'

(4) 『사기』의 이단아들

사마천의 『사기』는 130편으로 이루어져 있음. 황제들에 관한 이야기인 「본기」가 12편, 제후들에 관한 이야기인 「세가」가 30편, 왕들의 이름과 일어난 사건에 대한 간략한 기록인 「표」가 10편, 도량형이나 화폐 등 당시의 사회적 문물에 대한 서술인 「서」가 8편, 그리고 다양한 인간군상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열전」 70편.

「본기」에 들어있는 항우와 여후呂后, 「세가」에 들어있는 공자, 진승陳勝

「열전」-'열(列)'은 '배열하다', '서술하다'라는 뜻이고, '전(傳)'은 '전달하다', '전하다'

(5) 「자객열전」에서 「영웅」까지

「자객열전」에는 다섯 명의 자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진시황의 목숨을 끊기 위해 진나라로 떠났던 형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인상적. 연나라 태자 단(丹), 신용神勇을 가진 인물이 형가, 친구 고점리高漸離.

바람은 서늘하게 불어오는데 역수의 물은 참 차갑구나,(風蕭蕭兮易水寒)

장사가 한 번 떠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리,(壯士一去兮不復還)(「역수의 노래(易水歌)」)

베이징시에서 서남쪽으로 120킬로, 역현易縣. 옹정제를 비롯한 청나라 때의 황제들이 묻힌 청서릉淸西陵이 있는 곳. 진나라 출신으로 연나라에 망명한 장군 번어기의 목과 진시황이 갖고 싶어 하는 독항督亢 땅의 지도, 진무양. 자객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진시황의 칼에 죽기까지의 비장한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는 「자객열전」을 불후의 명작으로 남게 함. 비극적이며 인상적인 인물은 예양. 자신이 섬기던 군주 지백의 원수를 갚기 위해 조양자의 변소에도 숨어들었던 예양,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을 하고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자객과 유협

우위선吳宇森감독의 『영웅본색英雄本色』

장이모우張藝謀 감독의 『영웅』

-> 영화에 등장하는 '무명'이라는 배역은 형가의 이미지를 변주한 것. '천하'로 대표되는 대의를 위해 스스로의 원한 따위는 접고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던 무명의 모습엔 형가의 이미지만 차용되어 있을 뿐, 그가 보여주었던 '영웅'의 모습은 없음. 사마천이 「자객열전」을 통해 말하고자 했던 인간 사이의 신의와 의리, 개인의 꿈은 영화 『영웅』에 들어 있지 않음. 들어있는 것은 오직 '천하'를 위해 개인을 희생해야 한다는 제국의 논리 뿐.

(6) 얼음과 불- 반고와 사마천

『한서漢書』로 이름 높은 반고班固, 사마천을 비판함. 「본기」에 항우를 넣고 「세가」에 진승을 넣었으며 「열전」

에 자객이나 유협 같은 저잣거리 인물을 넣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비판.

사마천의 『사기』는 통사通史의 대표작이고, 반고의 『한서』는 단대사斷代史의 대표작.

열정적인 사마천이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역사 인물들을 배치했다면, 반고는 매우 냉철하고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인물. 반고의 할아버지는 난대蘭臺의 일을 맡아 했으며 반고의 아버지 역시 역사를 서술 하는 일을 함.

반고의 동생이었던 반초班超-난대영사蘭臺令史. 장건을 흠모. '투필종융投筆從戎'.

반고의 여동생 반소(班昭)- 오빠의 뒤를 이어 『한서』를 완성함.

"사마천은 광범위하게 섭렵하였고 경전을 꿰뚫고 고금을 치달려 수천 년 사이를 오르내렸으니 근면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의 시비판단은 성인의 기준과는 사뭇 달랐다. 대도를 논할 때에 황로를 앞세우고 육경을 뒤로 돌렸으며 (반고의 눈에는 유가 사상만이 유일한 통치 이념이기 때문에 사마천이 도가사상을 받아들였던 것을 비판한 것) 유협들을 서술할 경우에는 간사한 무리들을 앞세웠고 화식을 서술할 때엔 世利를 숭상하고 빈천함을 수치로 여겼으니 이것이 그 책의 폐단이다. 사마천의 문장은 웅변이지만 화려하지 않고 질박하지만 촌스럽지는 않다. 그 문장이 곧고 사실이 핵심적이며 악을 숨겨주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록이라고 일컫는다. 아 슬프다! 사마천의 광박한 식견으로도 자신을 보전할 방법을 알 수 없었으며 극형을 당하고 난 뒤에 발분하였으니 그가 임소경에게 보낸 편지에서 말한 바가 참으로 틀림이 없다. 명철하여서 능히 그 몸을 보전한다는 말이 있는데 명철보신이라는 말이 얼마나 힘든 말인가?" (반고의 비판)

"사마천과 비교한다면 반고는 감정을 억제하고 있다. 거의 얼음처럼 차가워 보인다. 그렇게 개인의 감정을 억제한 반고의 문체는 후세의 역사가들에 의해서 추종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자기가 그리고 있는 주인공에 대한 사마천의 열정적인 관심을 흉내 내기 어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역사가가 사실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개인적인 감정을 배제한 채 작업을 한다는 것은 독자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기』와 『한서』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흥미, 문학적 효과 측면에서 본다면 반고의 『한서』보다 『사기』가 한 수 위이다." (버튼 왓슨)